

'무주반딧불축제' 위상 재확인 태권마을 조성사업 '순항'

2023 전북 시군 대표축제 선정... 관광객 콘텐츠 만족도·지역주민 호응도 '최고'

무주반딧불축제가 2023 시군 대표축제로 선정되면서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예산 명목으로 1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됐다.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는 '시군 1 대표축제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기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반딧불축제는 전문가가 직접 축제현장을 방문해 평가한 축제장 시스템과 콘텐츠, 운영·관리 상태, 방문객 만족도 조사, 그리고 지역축제육성위원회 발표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객 콘텐츠 만족도와 지역주민지지·호응도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여름철 관광성수기 이후 줄어드는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큰

축제로 주목을 받았다. 또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상품화해 청정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오해동 과장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인정받으면서 환경축제이자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야간형 축제의 입지를 강화해 무주와 더불어 반딧불축제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를 주제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반딧불이 서식지와 무주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가 되면서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확대, 축제장 공

간 재구성 등의 변화를 시도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소비를 유도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양했다.

한편, 무주반딧불축제는 천연기념물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테마로 한 생태자연환경축제이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관광문화예술 축제로,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인 이래로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대표축제, 그리고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의 명예를 지켜왔으며 이제는 생태를 테마로 문화와 환경, 예술, 교육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원로 태권도인 정주 공간 올해 총 공정을 59% 달성



무주군이 세계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정주권 환경을 갖춘 태권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내년 10월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 들어 태권마을 공용건축물인 커뮤니티센터 1동과 힐링테라피 2동 건설을 위한 토목 공사와 조경공사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총 공정을 59%(토목 85%, 건축 33%)를 달성했다.

군은 이 같은 공정을 감안할 경우 오는 2023년 10월께 태권마을을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내년에 완공될 '무주태권마을'을 전 세계 태권도인을 아우르는 태권도 메카 빌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태권마을은 총 사업비 103억 원을 들여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88-1번지(태권도원 인근)일원에 태권마을을 조성 중이다. 주택용지 필지는 총 39개 획지로 가구당 100~200평 규모로 부대 시설로는 수련·교육 시설인 태권커

뮤니센터(1,144㎡)와 힐링·체형 시설인 힐링테라피센터(86㎡)가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 중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분양 가격은 조성 원가 산정 후 감정 평가를 진행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 설천 태권도원 주변에 태권마을이 완공되면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함께 무주군이 세계가 주목하는 태권도 메카 도시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황인홍 군수는 "세계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귀국 후 정착을 위한 정주 공간 조성과 관광 명소화를 위해 태권마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진입로 열선 설치

진안군은 27일 겨울철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복지관·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진입로에 열선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6월에 사업을 시작, 최근 복지타운 진입로에 열선 설치공사를 마무리했다.

열선 설치로 시설 진입로의 적설과 결빙을 방지해 겨울철 일어나기 쉬운 시설 이용자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복지타운에 설치한 열선은 눈이 오거나 노면 결빙이 발생 할 때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도로면의 눈을 녹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관리를 한다.

전춘성 군수는 "복지타운 진입로 열선 설치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 수 있어 안심이다"며 "한파나 폭설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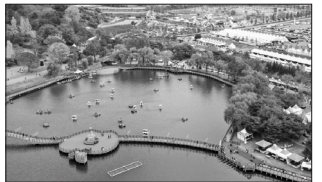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최우수'

2023년 전북 최우수 축제 선정... 도비 7000만원 확보

장수군은 '제16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전라북도 대표축제 심사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도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는 축제 성과와 2023년 사업계획을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로 나누어 지역사회 기여도, 축제발전 역량 등 총 10개 분야의 평가로 실시했다.

올해 16회째 개최한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0



일까지 4일간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34만여명의 방문객과 34억여 원의 농특산물 판매액을 달성하는 등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또한 레드푸드(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농산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군 농특산물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야분화 등 문화적 요소 도입, 축제장 확대와 개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은 "4년만의 대면 축제인 만큼 군민들과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내년에는 장수 농특산물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가져

무주군은 27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가, 농업인 단체 회원 및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민의집에서 열린 농촌지도사업 보고회는 2022년 수행한 농촌진흥사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23년 주요 시책 등 정보교류를 통한 농촌진흥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촌지도사업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과 함께 추진사업 성과보고, 각계인사들의 축사가 이

어졌으며, 우수회원 및 농업·농촌발전 유공자들에게 대한 표창 시상식도 가졌다.

농업분야의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견학, 농업인단체 학습과제물 전시, 농촌자원을 활용한 가공제품 및 농업기계 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선도농가인 김화재씨의 시범사업 우수농가 사례발표, 전문 강사의 농업인용을 위한 심뇌혈관 예방 주제로 농업인 교육도 마련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역건설사업자와 소통의 장 열어

장수군은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시공을 위해 지역건설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훈식 군수, 이대운 전문건설협회 장수군지회 회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현장 건설시공을 위한 품질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역건설사업자 및 시설직 감독공무원과의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분야 예산확보 △지역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 확대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예로서항 전달 △건설시공 사업자 인센티브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수립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간담회에 앞서 2023년 안전사고 없는 장수군을 위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홍보 등도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307개 전체 마을회관에 와이파이 구축

진안군은 307개 전체 마을회관에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8기 전춘성 군수 공약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군은 '마을회관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 서비스 구축'을 민선8기 공약으로 내걸고, 마을회관 이용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여가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진안군 모든 마을회관에 와이파이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들은 데이터 걱정 없이 마을회관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피와 함께 구축한 IPTV를 활용한 정책홍보 서비스는 진안군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콘텐츠를 마을회관 IPTV를 통해 송출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군은 자막 등을 활용해 정책, 질병 및 재난상황, 농정현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마을회관 와이파이를 통해 마을회관에서 데이터 걱정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다양한 군정 정보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방하천 제방정비 평가 군단위 '최우수'

무주군이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하천 제방정비 평가 결과 군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하천제방에 대해 하천감시 및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하천제방 유지관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

군은 사업비 300여 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천통수단면 확보와 노후 구조물을 우기 이전에 조기 정비, 주민편의를 도모했으며, 재

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했다.

또 군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우기 전 지장 수목의 제거와 65개소 토사 퇴적구간을 정비하는 선제적 사업을 펼쳤으며, 하천의 우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외에도 하천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행락철 불법 설치물 등의 점검을 통해 하천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